【자유교회 소식】

1.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 수양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친교식사 후에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12월 가정예배로 모이겠고, 오늘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5. 다음 주(7일) 주일예배는 신년 감사예배로 드리고 1월 월례회는 한 주간 연기하여 14일 주일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 결석자들과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0.00	
감사헌금:	$1,350.00	
주일헌금:	$0.00	
특별헌금:	$400.00	합계 $1,85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일 예 배

오전11:00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기 도	Prayer	최원춘 장로
찬 양	Special Event	자 원 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누가복음 10:38-42**	인 도 자
설 교	**분주함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살라**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박재은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FFC와 연합)
한글학교& 찬양대	주일 오후 1:30
Youth Group	매수 오후 7시(FFC Youth)

2017년 12월 31일 제2017-53호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 할때에
예수 영광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교회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경 말씀(누가복음 10:38-42)

38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하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
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
데,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
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1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
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
떠 있다.
42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
지 않을 것이다.